

한다감 “‘아씨 두리안’ 상상도 못한 결말 놀랐어요”

임성한 작품 첫 출연, 둘째며느리 역
“대본 구체적...난이도 높은 연기였다”

“배우들도 마지막 촬영을 마치고 서로 물어봤어요. ‘너는 어떻게 끝났어?’ 하고요. 모두 상상한 것과 다르게 마무리돼서 놀랐어요.”

최근 종영한 TV조선 드라마 ‘아씨 두리안’에서 단 씨 집안 둘째 며느리 이은성을 연기한 배우 한다감<사진>은 17일 임성한(필명 피비) 작가의 작품에 처음 출연한 소감을 묻는 기자에게 긴 호흡으로 대답했다.

임 작가는 파격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전개와 독특한 대사로 내놓는 작품마다 화제가 되고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다. 게다가 그의 모습을 본 사람이 거의 없을 만큼 신비로운 이미지와 독특한 각본 작업 방식으로 유명하다.

이날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한다감은 “임 작가님 대본은 일반적인 대본의 형식과 다른 부분이 많고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 쓰여 있어 이해하기 쉽지 않았다”며 “‘물집 3분의 2잔에 큰 얼음 하나’ 식으로 소품 하나하나까지 적혀 있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사를 한 줄 한 뒤에 물을 마시고 컵을 내려 놓은 뒤 고개를 돌린다는 식으로 대본이 너무나 구체적이었다”며 “난도가 높은 연기였다”고 회상했다.

이은성의 도회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를 만들어낸 중반달 스타일도 임 작가의 세세한 주문이 들어갔다. 한다감은 “작가님이 ‘앞으로 일 센티만’ ‘뒤로 조급만’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셔서 제작진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했다”고 설명했다.

임 작가는 특히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모습을 참고 하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한다감은 “김 여사님 사진



이 저한테 왔고 ‘이런 머리와 의상과 스타일링을 해 달라’고 하셔서 참고했다”며 “작가님이 재벌가의 교양 있는 인물로 그분을 떠올린 것 같다”고 말했다.

‘아씨 두리안’은 조선시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박언(유정후 분)을 그리워하던 어머니 두리안(박주미)과 아내 김소저(이다연)가 현대로 와서 단 등명으로 환생한 박언과 단 씨 일가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일을 다룬다.

현생에서 백도이(최명길 분)에게 만드느라인 장세미(윤혜영)가 사랑을 고백하고 백도이가 30세 연 하인 주남(박민호)과 결혼하는 등 파격적인 전개로 화제가 됐다.

한다감이 연기한 이은성은 백도이의 둘째 며느리로 간간하면서도 눈치 빠르고 씩씩한 인물로 중반부까지만 해도 ‘극중 가장 평범한 인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평범하게 보였던 이은성은 드라마 후반부 두리안에게 ‘내 남편인 단치감(김민준)의 아이를 낳아달라’고 부탁해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한다감은 “‘정상적인 캐릭터는 은성(이은성)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대리모가 돼 달라고 부탁하는 대목이 나와서 당황했다”며 “저는 감히 상상조차 못할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

1999년 MBC 드라마 ‘사랑을 위하여’에 출연하며 연기를 시작한 한다감은 20년 넘게 주연과 조연을 오가며 공백기 없이 활동을 이어가는 배우다. 한은정이라는 이름을 쓰다가 지금의 이름으로 개명했다.

그는 “사실 어릴 때 너무 자주 아파서 별명이 ‘또 아파’였을 정도였고 20~30대 때는 한 장면을 찍을 때마다 앞도려서 쉬어야 했다”며 “지금은 전보다 훨씬 건강해졌다”고 털어놨다.

건강해진 덕분에 한다감은 2020년 ‘터치’ ‘우아한 친구들’ 2021년 ‘국가대표 와이프’ 2023년 ‘셀러브리티’ 등 최근 들어 더욱 왕성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외모에 어울리는 도시적이고 세련된 인물로 주로 연기했다.

앞으로 도전하고 싶은 연기가 있는지 묻자 한다감은 “예전에는 ‘다음엔 이런 작품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다면 이전 비슷한 캐릭터를 맡아도 다른 매력과 다른 색깔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라고 대답했다.

“쉬지 않고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분이 저를 찾아 주신 데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를 찾아주신 데 보답할 수 있도록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연기를 잘 해내고 싶은 욕심도 있어요. 기회가 된다면 열심히 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에요.”

/연합뉴스



아이유 콘서트 실황 영화로 만나요

‘더 골든 아워’ 다음달 개봉

CJ CGV는 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사진)의 데뷔 15주년을 기념해 오는 9월 콘서트 실황 영화 ‘아이유 콘서트: 더 골든 아워’를 개봉한다고 최근 밝혔다.

아이유의 콘서트 실황을 토대로 만들어진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작품은 지난해 9월 17~18일 열린 아이유의 콘서트 ‘더 골든 아워 : 오렌지 태양 아래’를 바탕으로 했다.

당시 아이유는 한국 여자 가수로는 최초로 가수들의 ‘꿈의 무대’로 불리는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 주경기장에 입성해 약 8만 관객 앞에서 공연을 선보였다.

이번 영화에서는 ‘에잇’, ‘셀러브리티’

(Celebrity), ‘스트로베리 문’(strawberry moon), ‘밤편지’, ‘너랑 나’ 등 히트곡을 비롯해 ‘팔레트’, ‘좋은 날’ 등 콘서트에서 듣기 어려웠던 노래까지 총 25곡의 무대를 만날 수 있다.

콘서트 개최 당시 화제를 모았던 초대형 ‘스트로베리 문’ 열기구와 드론 쇼, 불꽃놀이 등 다채로운 무대 연출 역시 그대로 담긴다.

2008년 미니 1집 ‘로스트 앤드 파운드’(Lost And Found)로 데뷔한 아이유는 수많은 히트곡을 내놓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솔로 가수로 성장했다.

‘호텔 델루나’, ‘나의 아저씨’ 등 드라마와 ‘브로커’, ‘드림’ 등 영화에 출연하며 배우로도 활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멤버들 의지 컸다” 블랙핑크 서울서 월드투어 앙코르 콘서트

9월16~17일...17일 온라인 생중계

걸그룹 블랙핑크<사진>가 다음 달 16~17일 서울에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의 앙코르 콘서트를 연다고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가 지난 16일 밝혔다.

블랙핑크는 지난해 10월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를 망라하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만난 팬은 총 175만명으로, K팝 걸그룹 사상 최대 관객 동원이다.

블랙핑크는 이 월드투어 티켓을 연일 매진시켜 방문하는 국가마다 큰 화제를 모았다. 일부 국가에선 이들을 보려는 팬들이 몰리면서 비싼 압파크 문제로 떠오르기까지 했다. 당초 마지막 콘서트는 이달 26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예정됐지만, 한국 공연이 ‘깜짝’ 추가된 것이다.

YG는 이날 공연장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블랙핑크의 인기와 월드투어 피날레라는 상징성을 고



려할 때 지난해 서울 콘서트가 열린 올림픽공원 KSP옴(체조경기장)을 웃도는 대규모 공연장에서 열릴 가능성도 있다.

앙코르 공연의 17일 무대는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된다. 티켓 선예매는 29일 오후 8시 인터파크 티켓에서 진행된다. 일반 예매는 다음 달 1일 오후 7시부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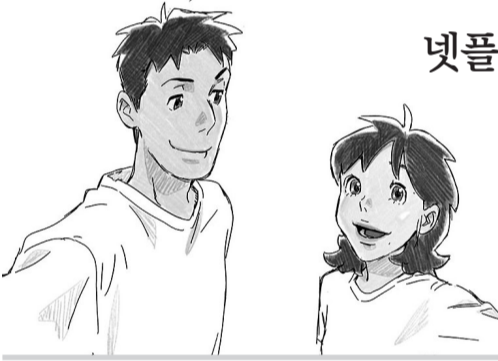
YG는 “서울 앙코르 공연에 대한 블랙핑크 멤버의 의지가 컸다”고 전했다.

블랙핑크는 이달 8일 데뷔 7주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약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서울 앙코르 콘서트 결정으로 재계약 여부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YG는 이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만 밝혔다.

/연합뉴스

넷플릭스 애니 ‘이 별에 필요한’

김태리·홍경, 목소리 연기



넷플릭스는 애니메이션 영화 ‘이 별에 필요한’(사진)제작을 확정하고 김태리와 홍경을 목소리 연기 배우로 캐스팅했다고 최근 밝혔다.

넷플릭스가 한국 애니메이션 영화를 선보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작품은 우주 과학자 ‘남영’과 가수 겸 음향 기기 수리업자인 ‘제이’의 장거리 로맨스를 그린다.

김태리는 사고로 지구 귀환에 실패한 엄마의 흔적을 찾기 위해 화성을 탐사하러 떠나는 남영을 연기한다. 홍경은 남영에게 남겨진 엄마의 유품인 텐테이بل을 통해 그와 재회한 뒤 사랑을 싹틔워가는 제이 역을 맡았다. 김태리



와 홍경은 앞서 SBS 드라마 ‘악귀’에서도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최근 최은영의 소설 원작 애니메이션 ‘그 여름’으로 호평받은 한지원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연합뉴스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대 연 건 설

광주 동구 제봉로190번길 7-1
건설업·설비·토목
☎ 062)236-1510, 010-2630-4820

(주)아이기스 화진화장품

광주시 동구 금남로 203, 지산빌딩 2층
인마의자, 식품화장품, 마사지, 기계 개발
☎ 062)223-0177, 010-3642-7320

(주)대신수산유통

광주시 동구 제봉로 194번길 14
각종 수산물 무역/유통
☎ 062)233-0067, 010-3634-7264

문화결혼상담소

북구 북동 242-4번지
초혼·재혼 상담
작명, 궁합, 풍수지리
☎ 062)529-0315, 010-3606-5632

꽃게랑 약선반찬 전집

광주 북구 운암1동 황계로 27-1
간장게장, 양념게장, 모듬전, 김치류전문
제사음식, 반찬메뉴, 흥어무침, 추어탕
오리탕, 나물종류 등 사전예약 가능
☎ 010-2315-2058

금남로 사주 카페

금남로 4가 50번지(원각사 바로 옆)
궁합, 신수, 작명, 운수 판단
☎ 010-7495-1577

동 양 철 학 원

동구 불로동 11-2(평화식당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 062)224-7687, 010-2611-7687

고 전 방

동구 공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

성수동골짜배기 나주영산포점

전남 나주시 예향로3778, 영산포5일시장 건너편
골짜배기2개 1000원, 옛날함도그1개 1000원
치즈함도그1개 1500원, 찜살도너스2개 1000원
팔도너스1개 1000원, 흑임자도너스1개 1000원
☎ 061)337-7987, 010-7732-6955

면 쟁 이

동구 산수동 518-14, 광주은행 산수지점 건너편 위
다양한 각종 면요리와 생과일주스
75세이상 어르신과 금식카드 고객 50%할인판매
우동모밀, 죽 등 다양한 면요리 전문점
☎ 010-5459-9664

(주)쓰리에이치 광주대인센터

광주시 동구 구성로 215, 4층
온열, 지압, 뜸, 마사지 가능
의료기·발명·특허·우수조달물품
☎ 062)573-3112, 010-8221-3119

석 당 화 랑

동구 공동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인철(仁喆)익스프레스

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

무크 광주세정점

광주시서구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1층 151호
심플하고 옛지있는 스타일의 가물신상품 출시
남·여화 20~40% 세일
(일부 품목은 제외)
☎ 062)370-9151

법무사 황영수 사무소

광주시 동구 지산로 78번길 13, 검찰청담배막걸리
소송, 민사집행, 민사신청, 공탁, 가사,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각종 법률무로상담
☎ 062)226-9966, 010-3002-0816

초 대 화 랑

동구 공동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송가네 반찬

광주시 남구 백운로 99번길 2
각종 반찬 주문
☎ 062)672-9809, 062)672-6376

다흥치마 한정식 전문

광주시 북구 독립로 251
한정식, 고풍어구이, 주물럭, 쌈밥, 갈치구이
☎ 062)233-9952, 010-4469-0360

작곡가김기범노래교실

광주 동구 계림동 331-4
(계림동로타리 옛 계림오거리입구 3층)
전자율겐으로 직접 연주, 개인지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방을 완비
☎ 062-225-4445, 010-3603-3064

박 당 화 랑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 및 감정
대표 박한승 ☎ 062)222-6866

남도철학원

북구 전변우로79번길87(임동)
수강생 수시모집! 사주, 작명, 출산, 택일
명리비전으로 수강생 개인지도
☎ 062)522-9653, 010-8645-2254

다흥치마 한정식 전문

광주시 북구 독립로 251
한정식, 고풍어구이, 주물럭, 쌈밥, 갈치구이
☎ 062)233-9952, 010-4469-0360

작곡가김기범노래교실

광주 동구 계림동 331-4
(계림동로타리 옛 계림오거리입구 3층)
전자율겐으로 직접 연주, 개인지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방을 완비
☎ 062-225-4445, 010-3603-3064

박 당 화 랑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 및 감정
대표 박한승 ☎ 062)222-6866